

# '우리밀 특구' 광주서도 우리밀 사라진다

재배면적 급감에 축제도 사라져...광주시, 육성위 꾸려

수입밀 공세에 소비 부진·정부 지원 부족·농지 개발 주원인

전국 유일의 '우리밀 특구'인 광주에서 우리밀 재배면적이 가파르게 줄고 있다. 우리밀 소비 부진, 정부 지원 부족, 농지 개발 등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광주시가 우리밀육성위원회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우리밀 재배면적은 지난 2016년 1323만㎡이던 것이 2017년 914만㎡, 2018년 466만㎡로 급격하게 줄고 있다.

광주는 한때 전국 생산량의 30%를 웃돌며 우리밀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했으나 재배면적 기준, 2016년 전국대비 12.6%, 2017년 9.8%, 2018년 7%로 쪼그라들고 있다. 자치구별 우리밀 농가와 면적은 지난해 기준, 서구 44농가 29만㎡, 남구 139농가 177만㎡, 북구 32농가 27만㎡, 광산

구 200농가 262만㎡로 광주에서는 여전히 광산구가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 동곡·어룡·평동 일원 91만6582㎡는 지난 2011년 당시 지식경제부에 의해 '광주·광산구 우리밀 산업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농가에서는 우리밀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이유를 수입 밀 공세와 함께 정부·자치단체 지원 부족을 들고 있다. 40kg 기준 우리밀은 4만원인데 수입밀은 1만2000원 수준으로 가격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쌀과 달리, 정부가 수매에도 적극 나서지 않아 농가 의지를 꺾고 있다는 게 한국우리밀농협 측 설명이다.

정부와 광주시가 절반씩 부담해 종자·비료비 명목으로 1만㎡당 연간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밀을 지키고 육성하

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2007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광산구에서 열여섯 '광주 우리밀축제'도 올해부터는 열리지 않아 소비 촉진 홍보의 장도 사라지는 등 우리밀은 점차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백남기 농민 별세 후 생전 그가 보성고향 마을에서 우리밀 살리기 운동에 전념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우리밀에 대한 관심이 잠시 일기도 했으나 광주에서는 소비와 재배면적에 이렇다할 변화가 없다는 게 농가들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5일 조인한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리밀육성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우리밀 재배 면적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와 농림축산식품부의육성 계획 수립 요청이 계기가 됐다.

조부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5명, 김광란 시의원, 천익출 한국우리밀농협 조합장

등 생산자단체 관계자 2명, 밀식품단체 1명, 학계 2명, 소비자단체 1명 등 위원은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광주시의 우리밀 육성 중장기 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게 된다. 품종개발 등 기술개발 사항, 예산지원, 생산자 보호, 소비촉진 대책을 다룬다.

천익출 한국우리밀농협 조합장은 "식량안보와 소비자 건강을 생각한다면 우리밀이 수입산에 눌려 사라지는 것은 정부와 자치단체, 시민 모두에게 을 뒷집지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수매를 많이 해주고, 광주시와 구청에서는 소비촉진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밀은 우리 종자를 가지고 우리 땅에서 재배한 밀이다. 금강밀, 백중밀, 삼미찰, 백찰, 새금강 등 품종은 40가지를 넘는다. 벼 수확이 끝난 후 11-12월 파종해 봄에 거두는 동계작물이며 농약을 거의 치지 않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시의회, '비리 제명' 비례의원 빈자리 총원 착수

10일 이내 후임자 결정

광주시의회가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나현(비례대표) 의원이 제명돼 발생한 공석 채우기에 착수했다.

1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나현 의원의 제명안이 의결됨에 따라 결원 의석 승계 작업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나 의원은 제명 결정으로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나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몫으로 민주당 광주시의회 비례대표 1순위로 추천됐다. 2순위는 청년 대표인 최영환 현 의원이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나 의원의 후임은 3순위가 이어받게 된다. 3순위는 여성 몫으로, 최미정 민주당 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다.

의회는 절차에 따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원 결원 사실을 통보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결원이 발

생하면 소속 의회 의장이 선관위에 15일 이내 통보하게 돼 있다. 나 의원에게는 재산등록 신고, 사무실 정리, 지급 장비 반납 요청을 했다.

결원 의원 승계자 결정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결정일부터 곧바로 임기가 시작하고 의회로부터 사무실과 상임위를 배정받게 된다.

나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퇴직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의원의 행정 소송과는 관련 없이 후임자 승계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당헌·당규상 차순위자가 승계할 수밖에 없다"며 "나 의원의 이의 제기와는 관련 없이 공석을 채우는 것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도 AI 예방 오리농가 270호 방역 실태 점검

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사육 중인 모든 오리농가 270호를 대상으로 농장별 차단 방역 실태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AI 위험 시기에 맞춰 농장 단위 차단 방역중인 가운데 축산차량 출입이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해 가금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 농장에 축산차량 진입 시 철저한 세척·소독 후 진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가금농가(육계·육용오리)의 입식 전 신고와 점검, 출하 전 검사(오리) 등 입식·출하 관리를 하고 있다. 일제 입식·출하 현황에 대해서는 출하 후 7일이 경과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해 축사에 남아 있는 가금이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이다.

오리 사육농장에서는 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돌레로 생석회를 지속적으로 재 살포해야 한다. 전남도는 지난 10월부터 4회 생석회 살포를 일제 살포했다. 오는 18일 5차로 생석회 일제 살포할 계획이다. 농장에서 폭 30cm 이상, 두께 2-3cm 내외로 살포해 생석회 차단방역 벨트를 만들어야 한다.

전남도는 별도의 점검반을 편성해 20일까지 오리농장의 축산차량 통제 강화 조치 이행 상황, CCTV 설치·운영 현황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 사·군은 농가별 전담공무원 등을 통해 매일 농가별 방역 준수 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보물찾기 영상콘테스트 조훈도씨 '원더랜드' 선정

올 한해 전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상은 남도의 아름다운 풍광에 감성적 음악을 더해 보는 이들이 보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꾸민 조훈도(49·광주)씨의 '원더랜드(wonderland, 아주 멋진 곳, 신나는 것이 가득한 곳)'가 선정됐다.

전남도는 12일 전남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유산을 영상에 고스란히 담아 알리기 위한 '2019 전남도 보물찾기 영상콘테스트'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30점의 응모작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등 총 11점의 입상작을 선정했다.

우수상은 천용일(48·광주)씨의 '우리가 몰랐던 전라남도'와 김승규(49·광주)

씨의 '하늘에서 본 월출산'이, 장려상은 김동욱(36·부산)씨의 '남도의 산' 등 3편이 차지했다. 또 한재석(25·서울)씨의 '5minutes-travel 담양' 등 5편이 입선과 특별상에 선정됐다.

전남도는 수상 작품을 인터넷방송과 대표 블로그 및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각종 영상 제작과 행사 시 홍보영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명만 전남도 대변인은 "보물찾기 영상콘테스트를 통해 입상된 작품으로 전남의 아름다움을 전국에 알려 다른 지역에 거주자들이 전남을 찾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어린이집 급식 단가

515원 인상 2260원

내년부터 광주 어린이집 급식비 단가가 515원 인상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에서 지원해온 어린이집 급식비 단가는 1745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2260원으로 오른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3만9023명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시는 급식비 지원 예산 50억6400만 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품질 좋은 급식 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급식 관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새내기 공무원 화합·소통 디딤돌 캠프

12일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내기 공무원 디딤돌 캠프에서 신규공무원들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게임을 하며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북구는 매년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선배배간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올바른 공직 방향성 제시와 공직자로서의 소속감 고취시킬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 상무소각장 활용 시민 아이디어 수상작 11명 선정

광주시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상무소각장 활용 방안을 찾으려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12일 11명의 수상작을 선정·발표했다.

공모 주제는 상무소각장 전체 부지 중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1천㎡ 규모의 공장동과 쓰레기 반입장, 소각로, 굴뚝 등의 활용 방안이다.

최우수상에는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에서 예술혼을 태우는 문화창작 공간'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갈등이 어눌림으로 가는 공간'과 '역사를 기억할 빛고를 지원 전시관 조성'이 수상했다. 장려상에는 도심 농업·관광 연계형 LED 식물공장 건립, 문화예술 공연장 조성, 공장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보행 동선 추가 안이 뽑혔

다. 참가상에는 국립환경박물관 건립, 소통·화합 공간 조성, 복합 레포츠 관광 시설 활용, 정크아트 공간 조성, 책 공장 안이 선정됐다. 최우수상 250만원, 우수상 각각 100만원, 장려상 각각 50만원, 참가상 각각 30만원 상당의 광주상생카드와 은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상무소각장은 1996년 8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승인, 2000년 9월 소각장 준공, 2001년 12월 사용개시 신고 수리 등

의 절차를 거쳐 광주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소각해왔다.

하지만 폐쇄를 요구하는 인근 주민의 지속적인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광주 중심부에 소각장 존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주 발전 저해요인이라는 여론이 높아져 2016년 12월 폐쇄했다.

시는 상무소각장을 리모델링해 복합문화커뮤니티타운으로 조성하고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곤충사육장 + 태양광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